

전북지역 고교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도교육청, 내년부터 평준화고 3~4명 하향 조정 비평준화 지역도 2명씩 낮추기로

출생률 감소에 따라 고교 신입생이 크게 줄면서 전북지역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가 2명에서 4명까지 줄어들게 된다.

9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평준화고는 올해보다 학급당 학생 수를 3~4명 하향 조정하고 비평준화 지역도 각각 2명씩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주시 고교의 학급당 정원은 평준화고 31명, 특성화고 28명이며, 군산시 평준화고 학급당 정원은 31명, 익산시는 30명으로 조정된다.

또한 비평준화 고교 학급당 정원은 시 지역 27명, 읍·면지역 25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특목고와 자사고 및 교육과정

운영상 학급당 학생 수를 별도로 운영하는 25명 이하 학교는 이번 조정에서 제외됐다.

도내 고등학교 학생 수는 올해보다 2,661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조치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고교 학생 수의 경우 올해 신입생이 2만3,805

명에서 2022년에는 1만6,102명으로 32.4%가 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학급당 학생 수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교원수급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학급감축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총학생회협의회의 기업탐방 김승수 전주시장이 8일 밤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열린 전북총학생회협의회의 기업탐방 '동행' 프로그램의 첫날 초청 강연에서 전북지역 대학생들에게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를 위해 당사자인 대학생들이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완산구 희망복지지원팀 사례관리 시스템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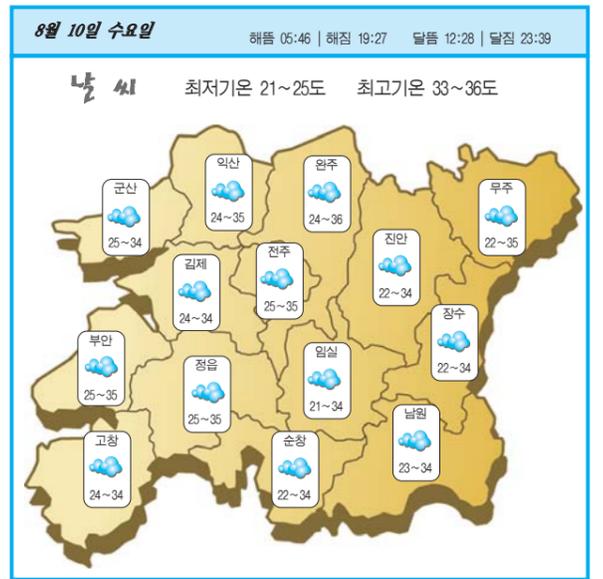
완산구(구청장 이용호)에서는 9일 보건복지부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의 안정된 정착을 위해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복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행복을 사례관리 시스템 교육을 실시했다.

복지허브화 사업은 읍면동에서 전문복지인력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주민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복지대상자와 공적제도, 민간 복지기관, 지역복지자원 간 연계체계 구축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 구현과 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실시한 행복을 사례관리 시스템 교육은 구청 통합사례관리사가 각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사례관리 절차, 시스템 입력 방법 등 일대일 방식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완산구 생활복지과 김인기 과장은 "이번 행복을 사례관리 시스템 교육이 각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의 역량 강화 향상으로 이어져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의 성공적 정착에 적극적 참여와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재기자



전북대, 우수 예비 창업자 지원

22일~내달 2일까지 '일반인 실천 창업강좌' 진행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창업 준비하는 대학생 및 일반인들을 위해 무료 실천 창업 강좌를 마련했다.

2일 전북대 창업지원단(단장 이동환)은 '일반인 실천 창업강좌(아이디어 창업)'를 오는 22일부터 내달 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좌는 우수기술과 아이디어, 특허 등을 갖고 있음에도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아이템별로 정해진 전담 멘토의 멘토링과 함께 세무, 회계, 법률, 특허,

마케팅 관련 분야에서 54시간의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1박 2일 워크숍에서 집중 멘토링 및 교육을 통해 예비 창업자들에게 성공 창업에 이르는 발판을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동환 전북대 창업지원단장은 "이번 교육은 전북대 창업지원단이 보유한 양질의 교육과 멘토링을 통해 창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실현 가능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성공 창업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전북교육청, 2016년 전국 공공기관 기록관리 평가 '최우수'

95.1점 6년 연속 최고점

전북교육청은 국가기록원이 발표한 '2016년도 전국 공공기관 기록관리 기관평가'에서 '가' 등급으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기록관 운영과 우수사례, 정책과제 등 지표 전반에서 95.1점을 받아 최우수기관에 선정됨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6년 연속 최고점으로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최우수 등급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다.

도교육청은 오래된 사진기록물 수집

과 전시회를 통한 역사기록물 발굴 및 보존·서비스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기록물의 소장·관리·활용·서비스까지 통합형 기록화 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올해 총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추진한 '학교역사관 조성 지원사업'을 통해 학교 역사기록물 역사기록물이 학생들의 역사인식 함양에 도움을 주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가치를 재조명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북교육청은 각종 기록물을 보관하는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통한 공유와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기록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기록물이 안전하게 보존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평가는 기록 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제도 정착을 위해 2007년 시범평가를 도입한 이후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관리평가시스템(RMES)을 활용한 1차 온라인평가와 2차 대면점검 등을 거쳐 기관유형별로 가(100~95점), 나(95점미만~85점), 다(85점미만~70점), 라(70점미만~60점), 마(60점미만) 5등급 절대평가로 실시했다.

/고민형기자

전북 짬뽕 더위... 완주 36도

절기상 칠석(七夕)인 9일에도 전북지역은 낮 최고기온이 35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까지 낮 최고기온은 완주 36도를 비롯해 정읍 35도, 임실 34.4도, 김제·부안 34.3도, 익산 34도, 전주 32.8도 등을 기록했다. 기상지청은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전북 전주와 익산, 정읍, 김제 등 11개 지역에 폭염경보를, 군산과 진안, 장수 등 3개 지역에 폭염주의보를 각각 발령했다.

기상지청은 한반도에 자리잡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당분간 낮 최고기온이 35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뉴스시스

원광대, 클러스터 창조 CEO 교육과정 운영

원광대는 클러스터 회사를 포함한 지역 내 기업 관계자 30명을 대상으로 '클러스터 창조 CEO 교육과정'을 개설해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미래의 기술과 창조 경영'을 주제로 한 이 교육과정은 원광대 LINC사업단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익산지사(지사장 김호범)가 공동 운영하며, 10일 원광대 학생지원관에서 개강식이 열린다.

개강식에서는 김호범 지사장이 '클러스터와 창조경영'을 주제로 특강을 펼치며, 이어 13주 동안 대학과 기업 및 지역발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강사진이 미래의 기술과 창조경영 리더 양성을 목적으로 다양한 강의가 진행된다.

특히 이번 클러스터 창조 CEO 교

육과정에는 전북 산업발전 전략부터 세무회계상식 및 지식재산, 벤처기업 창업부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이르기까지 각 지역 중소기업에 필수적인 강의들로 구성돼 지역기업으로부터 눈길을 끌고 있다.

대학 측은 창조경제 시대에 걸맞은 창조경영 실현과 함께 지역 내 산학협력 네트워크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광대 LINC사업단 송문규 단장은 "클러스터 창조 CEO 교육과정이 단순한 교육과정이 아니라, 이를 통해 지역 기업의 경영혁신과 산학협력 성과 확산을 비롯해 산학연관이 서로 협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전라북도 |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세계는 무주태권도원으로, 태권도로 하나되는 지구촌!

2017 전북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6.22-30 (9일간)